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현황 및 특성연구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Life-Culture Recording Projects

○양 지 원* 유 해 연**
Yang, Ji-Won Yoo, Hae-Yeon

Abstract

The project for recording the unique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s increasing due to the reason for applying it to the future planning direction. Although it is a significant project that can examin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human, social and economic ways, it tends to develop gradually in a uniform direction, contrary to its original intention.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need for introducing a regional-specific survey method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s raised. In addition, after investigating the local lifestyle, an alternative is needed for the outcome to be actively utilized in the local revitalization plan, and measures are needed for residents to utilize the dat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 by examining the progres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utilizing results of related projects through case analysis of domestic life-culture recording projects.

키워드 : 생활문화기록화, 아카이브, 재개발, 도시재생

Keywords : Life culture recording, archive, Re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1. 서로

1.1 연구의 목적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기록하여, 향후 계획방향에 적용하고자 생활문화기록화 및 역사문화기록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인문, 사회, 경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업이지만 본래 의도와 달리 점차 획일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조사방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생활문화를 조사한 이후, 지역 활성화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로 되며, 주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생활문화기록화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의 진행방식과 특성, 결과의 활용측면에서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조사한 생활문화기록화 사업과 서울시에서 진행한 생활문화기록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는 첫째, 생활문화기록화 사업의 등장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관련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사례는 2007년도 이후 등장한 생활문화기록화 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기록화 수법의 특성 및 학계를 도출하였으며, 끝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2.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의 등장배경 및 현황

2.1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의 등장배경

서울은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재개발, 뉴타운 등의 급격한 개발방식을 통해 도심을 확장시키고 개발해왔다. 특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된 뉴타운사업은 총 26개 지구, 23.8㎢에 걸쳐 지정되었다. 이 면적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내에서 완료된 주택재개발 시행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²⁾ 이후 서울시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이 타당치 않은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 사업을 중단하기도 하였다.³⁾ 이러한 재개발의 상황으로 인해 기존 마을의 흔적이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사라지는 마을의 생활과 문화 등 다양한 흔적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이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다.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은 단순히 마을

* 숙석대학교 겸임교수 대학원 석사과정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zenism@ssu.ac.kr)

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²⁾ 장남종, 양재성 (2008),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 과제, *서울시립대학원학술지*, pp.Ⅲ.

3) 장남종, 맹다미, 민승현(2013),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연구원, pp.28

의 물리적 형태의 기록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도시 안에서, 인간의 경험과 문화를 일차적으로 우선시하여 도심 안에서의 인간의 주체성을 상기시키고자하는 의미를 갖는다.⁴⁾ 서울에서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등장배경과 의미에 대한 분석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총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생활문화기록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 유형이다. 둘째는 기록화사업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는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해당 분야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화사업의 획일적인 진행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의 진행방식과 특성, 결과의 활용측면에서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1. 선행연구

분류	저자(년도)	주요 내용
사례 분석	엄수진, 박소현(2010)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유산 기록화 연구
방법 론	김주관(2005)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김덕목(2017)	지역기록화의 방향과 전략
정책	유광흠, 오성훈, 조상규, 성은영(2008)	건축, 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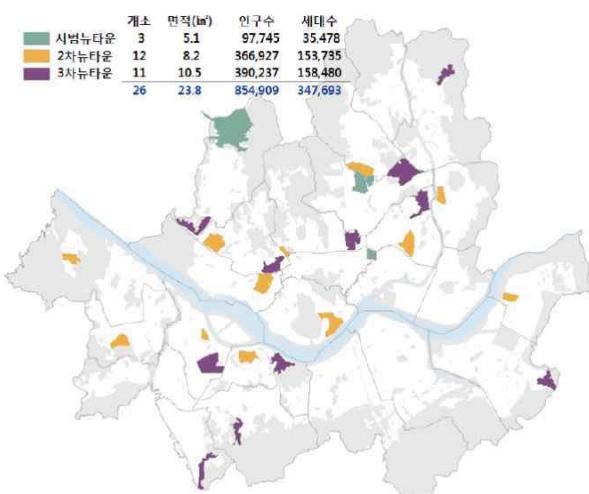


그림 1. 2008년 서울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현황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2008))

2.2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의 현황

도심개발로 인해 도시의 원형이 사라지는 현상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외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 별로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이 꾸

4) 장수현 (2000), 지방문화 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 pp.43-64

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으로써, 조선시대의 편찬사업 정신을 현대로 계승한 사업으로, 전국 지방의 향토문화의 수집과 분석 등의 활동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67개 지역 편찬이 완료되었고, 2023년도까지 총 167개 지역이 편찬 예정되어 있다.⁵⁾

표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완료 지역 (2019년 기준)

시	완료 자치구 수	시	완료 자치구 수
서울	3	강원	2
인천	1	충북	5
대전	0	충남	7
대구	2	경북	11
광주	0	경남	7
부산	17	전남	4
울산	6	전북	8
경기	9	제주	2

(출처 : 향토문화전자대전, 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현황 (2020))

2.3 생활문화 기록화 사업의 진행방식

전국의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에서 공고된 입찰에 대해 용역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용역입찰공고 방식에 관한 분석 또한 서울지역 내에서의 입찰방식으로 한정하였다. 공고기관은 용역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평가하여 용역진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2010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재개발 지역(아현, 한남뉴타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생활문화기록사업 사례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에 80점, 입찰가격평가에 20점이 배점되었다. 2010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재개발 지역(아현, 한남뉴타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생활문화기록사업 사례의 경우, 건축사법 제 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건축사무소,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민간기관에서 시행한 ‘근현대 경관·건축 기록’ 관련 수주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단, 단순 문화재 관련 용역이나 유구 실측조사는 제외함) 두 가지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입찰참가자격 및 협상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은 대개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3. 생활문화기록화 사례연구

3.1 서울역사박물관의 생활문화기록화 사업 현황

전국적으로 많은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서울 내의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주축을 이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서울 내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특성을 결과로 도출하고 앞

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20), 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현황

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 보광동을 시작으로 매해 진행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은 표.1에서 보이는 지역별 진행사항을 보이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2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 5개만이 ‘한강 아래, 강남지역권에 대한 조사였고 그 외 조사는 모두 강북지역권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등 재개발에 임박한 지역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중심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활문화기록사업 특성상 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점이 있기에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진 외에도 대학, 연구소, 건축사사무소 등 다양한 업체들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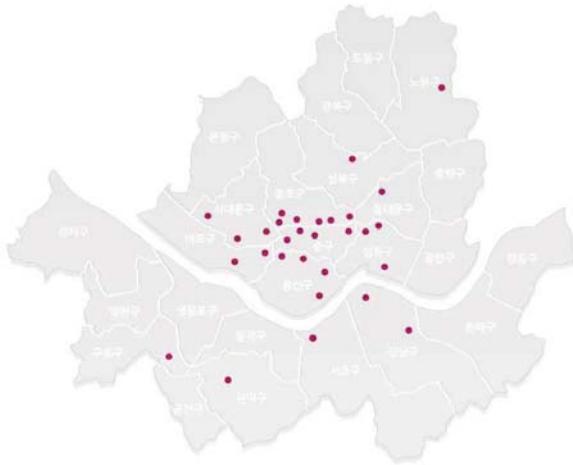


그림 2. 서울역사박물관 지역별 생활문화기록자료조사 지역 표시
(출처 : 서울역사아카이브 (2020))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 서울의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주축이 되는 서울시는 강북의 옛 한양도성 성곽마을지역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총 7개 권역으로써 성곽마을이라는 장소적인 특성을 역사, 사회, 경제, 건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록,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재발굴하고자 하였다.⁶⁾ 이러한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된 성곽마을 7개권역의 재생사업에 반영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위해 외부업체로써 주로 도시재생 관련 분야 업체, 도시, 건축과의 대학교 연구팀들이 서울시와 협업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생활문화기록화 사례별 구성 및 내용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생활문화기록 총 31건의 사업들의 목차들을 살펴본 결과 아홉 가지의 목차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조사개요. 둘째, 역사. 셋째, 공간. 넷째, 실측 및 주택기록. 다섯째, 인터뷰 및 주민생활사, 여섯째, 미디어 속 지역, 일곱

⁶⁾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017), 서울시, 성곽마을 7개권역 「생활문화 기록집」 발간



그림 3. 성곽마을 권역도
(출처 : 서울시, 서울시 보도자료, (2017))

째, 새로운 제안, 여덟째, 산업적 특성, 아홉 번째로 사진이다. 각 사업들마다 세부내용은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의 아홉 가지 유형 안에서 구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초반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산업적 특성’은 구성되지 않고 사라질 공간을 기억하기 위한 ‘제안’ 목록이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2010년대 들어 세운상가, 동대문시장, 명동 등 상업적 시설에 대한 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기록하기 위한 ‘산업적 특성’ 유형이 추가 구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은 기록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는 있으나 정해진 유형 안에서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표 4. 생활문화기록화 구성 유형화

목록	유형	세부내용	비고
1	조사개요	대상지 소개, 사업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2	역사	고지도 분석, 문헌조사, 경관 변화 등	
3	공간	주요 길, 공간, 장소 등	
4	실측, 주택기록	기본개요, 실내외 사진, 도면화, 생활	
5	인터뷰, 주민 생활사	주민 생활사	
6	미디어	문화작품, 대중예술, 뉴스, 영화 속 지역	
7	제안	지역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시설) 제안	뉴타운 재개발 지역
8	산업적 특성	지역의 산업적 역할에 따른 물리적, 시스템적 특성	특수산업 지역
9	사진	지역 사진	
10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표 5. 서울역사아카이브 생활문화기록사업별 포함유형

사업	포함유형	사업	포함유형
보광동	1,2,3,4,5	청량리	1,2,3,4,5
가제울	1,2,3,4,5,6	가리봉동	1,2,3,4,5,6,9
강남	1,2,5	남대문시장	1,2,3,4,5,8,9
길음동	1,2,3,4,5,6	마장동	1,2,3,4,5,8,9
돈의문	1,2,3,4,5	성수동	1,2,3,4,5,8,9
북아현	1,2,3,4,7	신림동	1,2,3,4,5,8,9
왕십리	1,2,3,4,5,7	황학동	1,2,3,4,5,8
서촌	1,2,3,4,6	인현동	1,2,3,4,5,8
세운상가	1,2,3,4,5,8	후암동	1,2,3,4,5
아현·염리동	1,2,3,4,5	신촌	1,2,3,4,5,8
동대문시장	1,2,3,5,8,9	청파, 서계	1,2,3,4,5
명동	1,2,3,4,5,6,8	대치동	1,2,3,4,5,8
창신동	1,2,3,4,5,8	홍대	1,2,3,4,5,8
104마을	1,2,3,4,5,8,9	반포본동	1,2,3,4,5
광장, 중부, 방산	1,2,3,5,8,9	북촌	1,2,3
이태원	1,2,3,4,5		

표 6. 서울특별시 생활문화기록사업별 포함유형

사업	포함유형	사업	포함유형
북정마을	1,2,3,5,6,9,10	부암동	2,3,4,5,9,10
삼선동369마을	1,2,4,5,9,10	행촌동	1,2,3,4,5,9,10
혜화, 명륜동	2,3,4,5,9	이화, 충신동	2,3,4,5,9
다산동	1,2,3,5,6,9,10		

4. 생활문화기록화 수법의 특성 및 한계

목차를 유형화하여 살펴본 결과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이전 사업의 답습으로 인한 구성의 획일화이다. 둘째는 일반인들에 대한 자료 공유방식에 대한 한계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고유의 특성 분석 방법 부재하다.

생활문화기록화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졌으므로 각 지역에 맞는 기록화 수법을 사용함이 지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들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새로운 기록화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향후 지역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고려한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구성의 획일화에 따른 한계이다.

기록화사업 이후 발간된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구성 또한 특성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전 사업에서 사용되었던 구성과 방법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6]의 구성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이후 기록화사업에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기록방식의 시도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구성과 활용방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 후 활용방법의 부재이다.

앞서 언급한 한계점들과 연계성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기록화사업의 결과자료를 출판, e book,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고 서울시는 출판물만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유방식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해당 지역의 자료를 찾고자 하는 이에게는 좋은 방식일 수 있으나, 해당마을의 주민들과 같이 자료에 접근할 기회가 자주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유 효과가 다소 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공유, 활용방식과 더불어, 실제 자료가 필요한 지역주민 및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2008
2. 서울연구원,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3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2009
4. Jang, S., H. (2000). Local Culture Research and Anthropological Methodology,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2, 43-64.
5. Eom, S., J. & Park, S., H. (2010). Documenting Communities and Archiving Heritages – A Case Study of Incheon Chinatown Community Archive, Journal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257-266.
6. Kim, D., M. (2017). Direction and Strategy of Regional Documentation, Folklore Institute, 35, 39-86.
7. Kim, J., K. (2005). The Meanings and Methods of the Construction of Peoples Everyday Life Histories Archives, Journal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vol.8, no.1, 217-249.
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2020
8. 서울역사아카이브, https://museum.seoul.go.kr/archive/NR_index.do, 2020
9. 서울특별시 eBook, <http://ebook.seoul.go.kr/html/>, 2020
1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index.jsp>, 2020